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으로의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다움주일 설교】

평 계

“(16)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다 일직하게 사양하여...”(눅 14:16~24)

김성관 목사

어이없는 거절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의 놀랄만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초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일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천국으로 초대받는다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그의 백성을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수많은 핑계를 갖다대며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일 때문에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나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거나 다른 일들을 찾아다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직접 나아오지 않고, 그 대신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며, 신학 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 읽기를 더 좋아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자기 자신들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둘러대는 많은 핑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큰 잔치의 비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첫째 메시지는 자기에게 나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공개적이고 매우 강력한 초대입니다. 둘째 메시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겠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무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손님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것을 먹는 자는 복이도다”(15절)라고 꽤나 경건하게 하는 듯한 말을 하자, 그 말을 받아 말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저런 핑계들

‘큰 잔치의 비유’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자 그 사람은 종들을 보내어 손님들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한결같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잔치를 베풀었던 ‘집 주인’은 노를 말하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21절). 그런데 종들이 주님의 명대로 했을에도 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을 가로가서 사람을 발견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23,24절).

“나는 발을 샀으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잔치에 올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운 세 가지 핑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핑계는 사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직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발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였으니 천천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8절). 이 사람은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을 확실히 보려고 합니다. 투자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산만이 소중한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돈을 많이 벌여 부자가 되는 데 온통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기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지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썯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3,34). 아멘. 오늘날에도 많은 사업가들과 상인들이 위와 같은 핑계를 대며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 다섯을 시험하려 가니”

두 번째 핑계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를을 샀으며 시험하려 가니 천천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19절). 이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일만 마작중한 일을 맡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시험해 보아야 할 소는 자그마치 열 마리나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대에 응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많다고 이 사람은 자신이 잔치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중요한 다른 일들로 너무 바빠 나머지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있는 것보다 시험 준비를 하거나 숙제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바쁜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바쁜 일들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상이 이와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핑계는 자신들의 직업과 말은 바 일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련있습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세 번째 핑계는 결혼한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20절). 이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나 직업보다는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즉, 가족에 대한 헌신도 좋고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핑계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초대입니다. 부디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초대를 거절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이 거하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재산이나 직업이나 가정 때문에 주님의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곧 천국으로의 초대는 온 세상마다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도 잔치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卍

EXCUSES

『(16)But He said to him, “A certain man was giving a big dinner, and he invited many; (17)and at the dinner hour he sent his slave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ready now.” (18)“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LUKE 14:16~24)

The excuses people make for not coming to Christ are astonishing. It is an invitation to the heavenly kingdom, the most precious place that exists, but so many people, especially Christians, have excuses for not coming. Can you believe it? To receive such an invitation is truly amazing, but to apologize with excuses is downright appalling. Indeed, there are those on the one side who say they love Jesus, His church, and His people, but on the other side, they have so many excuses for not coming. Some people are just too busy with the outside world. Either their demanding schedules conflict with God's agenda, or someone else needs their presence. Some people are just too smart. Instead of physically coming, they prefer watching church on television, reading about Christ in a theology book, or listening to a sermon on tape. Of course, you also have those who think they are too holy, too religious, in themselves to repent. They are the proud ones who don't need to pray to the Lord God. Jesus is aware of the excuses, the many excuses that people use. In today's Bible passage, He used a parable to not only express the open, compelling invitation to come to Him for salvation, but also to warn those who say, "I have something more important to do."

Jesus told the story about the "big dinner" while eating bread on the Sabbath at the house of one of the leaders of the Pharisees. The story was told in response to a seemingly pious remark by one of the guests,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made for dulling the point of Christ's teaching (v. 15). Previously, Jesus had instructed the one who invited Him to includ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and the blind, not friends, brothers, or rich relatives to his luncheons or dinners. The story Jesus told clarified His meaning. It involved a man inviting many people to his great banquet. When the feast was ready, he sent his slave to gather the guests. All the guests had excuses for why they couldn't come. The "head of the household" became angry, and he told his slave, "Go out at once in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here the poor and crippled and blind and lame"(v. 21). When this command was done, still there was room. So the master said to his slave,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along the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so that my house may be filled. For I tell you, 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of my dinner"(vv. 23&24).

In this story, Jesus highlighted three excuses that the invited guests used. The first one was made by a businessperson, "I have bought a piece of land and I need to go out and look at it; Please consider me excused"(v. 18). Here we find an executive who has to check out his recent real estate purchase. He has invested a lot of money, and if he doesn't look into it he may lose too much. For him, the celebration of the kingdom of God doesn't hold as much

meaning as his wealth. His heart is for worldly riches. Jesus said that all people should invest their hearts in the kingdom of God,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charity; make yourselves money belts which do not wear out, an unfailing treasure in heaven, where no thief comes near nor moth destroys. For where you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Lk. 12:33&34). Amen. This excuse applies to the business leaders and managers of today, who value money more than Christ.

The second excuse was made by a working person,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am going to try them out; please consider me excused"(v. 19). Here we find a common worker who depends upon his job to buy his daily provisions. His responsibility is so important, for he doesn't have just one ox, but ten to test. He's so busy trying to make ends meet that he feels justified in declining an invitation he had originally accepted. Most Christians fall into this category. They're so busy with other important things that they can't come to church. Their other jobs are more important than church. This also includes students who place exam preparations and homework above coming to church. It's sad when the busy families of pastors, elders, and deacons come to church, but other church members don't. So many churches are like that. This excuse relates to the people today who place their jobs and responsibilities above Christ.

The third excuse was made by a family person, "I have married a wife, and for that reason I cannot come"(v. 20). Here we find a person who loves family. His wife takes precedence over money and work, but not the kingdom of God. Jesus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Lk. 14:26&27). In other words, devotion to family and self must take second place to one's devotion to Christ. This excuse concerns all people who love others more than Christ.

My dear friend, do you want to come and taste the Master's dinner? You've already been invited! It's an unconditional invitation. Please accept, and don't let excuses come in your way toward eternal blessing. Jesus is calling you now. He's asking you to come to His heavenly home. If wealth, work, or family keeps you from coming, change your perspective. Jesus has to be number one in your life. He died for you, so that you could receive eternal life. His invitation to the heavenly kingdom is worth everything and everyone. Please answer, and come to Jesus Christ. Let there be no excuse for your absence. Please don't offer Him excuses. For I tell you, those who are invited and do not come will never taste the kingdom of God. 

지난 주일설교 후기

예수께서 부르실 때 (요 21:11~19)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후 삼 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임과 능력을 어엿함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였지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자신이 목격했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참됨을 자세히 말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쫓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쫓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쫓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쫓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것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당기는 어떻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요약·박윤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회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3-15).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보면 다음과 같다. "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심을 십자가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십자가가 그의 삶의 동기로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끄집어내어, "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흔히 구원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많이 말하고 중요하게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에도 십자가를 많이 말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바울을 보자. 그는 구원을 생각하거나 설명할 때에만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동기와 능력을 붙여넣어주는 것이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마다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면서도 결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울의 저 위대한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할 사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의 저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게도 바울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즉,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순결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다. 십자가를 빼놓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제치기 말해 주는 사람은 내게 필요 없다.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풍성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립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태복, 목사(전집국 지도))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138장).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는 그러면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가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울 수 있는가! 그 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나약하고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죄를,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가슴 속의 참 십자가의 교회를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의미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림으로 새겨진 증거인 것이 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찬양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344장). 그렇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 우리의 귀로는 듣지 못한 사실들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참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동·감화 주사 우리를 의의 길로, 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 때마다 그 십자가의 참 의미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되새기곤 한다. 온갖 모욕과 침 뱉음을 다 담당하시고 가신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떠올리며 아파하고 감사하며 회개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온갖 더러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신 그자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이다. 그렇다. 십자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정말로 사랑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제자들의 하나님과 구원을 위해 간구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그 복음의 전파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요 17장 참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는 해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참 귀하고 복된 진리를 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십자가를 짊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담하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찬송가 519장).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흘러 나와야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 오라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거룩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빛진 자로 그 비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담담하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어졌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만이 참 진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좇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혜선(장학사))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10일(월)~11월 18일(화)	C	10교구 5지역	최지윤
11월 13일(목)~11월 21일(금)	D	7교구 4지역	장길남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25일(화)~12월 5일(금)	L	11교구 6지역	박성명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18일(화)~11월 26일(수)	D	8교구 10지역	최차윤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G	2교구 9지역	김문섭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G	15교구 2지역	박미련
11월 19일(수)~11월 27일(목)	D	12교구 8지역	조문수
11월 20일(목)~11월 29일(토)	D	1교구 9지역	김용조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경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⑥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다 (행 5:12~17)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금방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 텐데..."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다. 복이 터져라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저절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열심에 격려의 감사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정직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선교의 현장에서 온전히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 한 편에, 혹시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말로 전하는 복음이 최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을 기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생각해 보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한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면 과연 쉽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고 체험했던 가버나움이나 벳새다나 고라산 마을을 생각해 보자. 그 마을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신자가 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기 있을진저 고라산아 하기 있을진저 벳새다아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들과 드로와 시몬에게 행하였던 저와가 벌써 배웃을 일과 같이 없어 회개하였으리라." (마 23:23-28). 많은 기적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복음서의 다른 기록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온 일도 있었다(행 5:12-16).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때에도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0).

원만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이루어진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케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생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믿음이지 기적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이 최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이 기적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다. "너는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요 15:20).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듣고 믿으며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전하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함께 역사하시는 생령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전하자.

(편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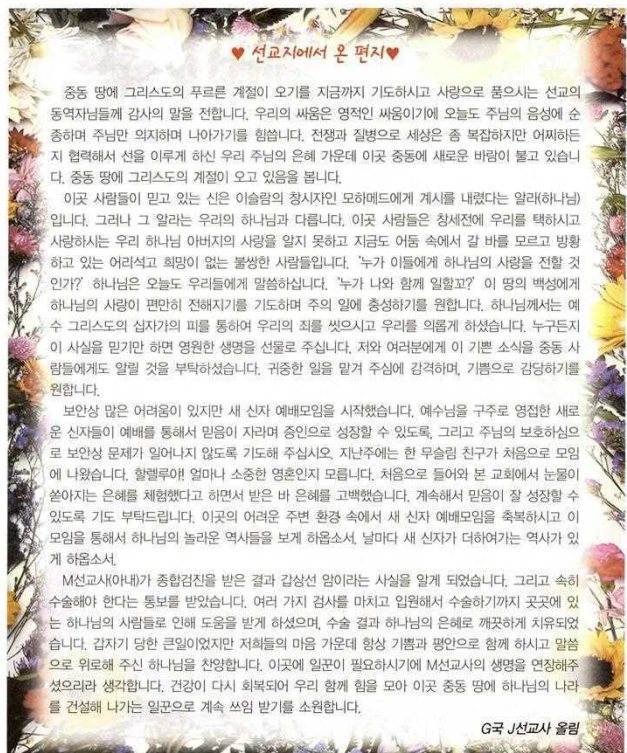
인도의 마이솔 지역 선교를 다녀와서

성 기 철 (성도, 1교구)

1교구 4지역 단기 선교팀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방갈로르 이곳에서 차량으로 5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이솔 주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다. 이 지역에는 힌두교도(약 85%) 이슬람교도(약 12%)가 대부분이고 기독교인(약 2%)은 적었다. 그곳은 우상숭배의 암흑 속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빈곤에 허덕이는 최하층민이 살고있는 곳이었다.

방갈로르에서는 하루 동안 학교를 방문하여 영어로 사역을 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마이솔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하였다. 가난에 찌든 마이솔의 농촌 풍경, 우물과 땀발 여인의 물항아리,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모습 등은 사마리아를 연상하게 했다. 여러 마을에 세워진 작은 가정 교회들을 거점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먼저 텃밭남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3개조로 나누어 축도 전도와 노방전도를 하였다. 한 맹인 성도의 반주와 함께 '할렐루야 수두리 마리아(주님 찬양합니다)'라고 소리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그 찬양 속에서 심령이 갈급한 영혼들의 호소를 들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말을 가득 채운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른 학생들도 다시 한 번이 채워졌고, 밖에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볼수있다. 사역을 마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기를 기도하며 이동했다. 이렇게 7개 마을을 순회하며 사역을 하였다.

사단의 위협이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우리 눈과 가슴에 각인된 영혼들을 위해 틈틈이 모두 합심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중동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지극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때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서 소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니, 전쟁과 질병으로 세상은 좀 복잡하지만 어찌하든 지 힘써서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중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믿니다.

이곳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에게 계시를 내렸다는 알라(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알라는 우리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이곳 사람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고 희망이 없는 불쌍한 자들을 원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일할까?' 이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히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중동 사람들에게도 알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귀중한 일을 맡겨 주심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보안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 신자 예배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신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며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안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니, 지난주에는 첫 예배를 친구가 처음으로 모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들어와 본 교회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반도 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서 새 신자 예배모임을 축복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신자가 더하여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M선교사(야베) 총합검전을 받은 결과 감상선 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수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입원해서 수술하기까지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수술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큰일임(의심)한 자해들의 밑 거둔데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일꾼이 필요하시기에 M선교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곳 중동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꾼으로 계속 섬길 만기를 소원합니다.

G국 J선교사 올림

라마단 1부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그들의 금식, 라마단 1부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15개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 중 3분의 1인 5개국을 주요 종교가 이슬람이고, 나머지 나라에서도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수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처럼 이슬람의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뿔어 나가고 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무슬림들의 종교적 열정과 그들의 힘을 직접 경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기독교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슬람'! 기독교인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종교에 열심인 '무슬림들'! 이 무슬림들이 매년 한 달씩 금식을 선포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인 '라마단'! 우리는 이 이슬람과 무슬림과 라마단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과연 이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했고, 구원의 은혜를 헛된 세상 너머에 있는 내세에 대한 바람으로 이해했으며, 주님과 하나님의 기도는 나의 정성을 하늘에 쌓아 복을 받았다는 일념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전통으로 내려왔던 관습과 종교성 안에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주님의 복음은 결코 인간의 관습과 종교 안에서 재창조되고 재해석될 수 없다. 주님의 복음은 인간의 관습과 종교를 뛰어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라도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진리'이다. 진리는 결코 문화와 타협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관습이나 종교와 융합될 수 없다. 이 결과로 우리는 다른 문화 혹은 관습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갈등한다. 특별히 단기선교를 나갔던, 아니 나가는 우리도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 '사랑'을 생각하면 무슬림들의 약한 점(가난, 문맹, 비윤리 등과 같은 물질적 부분)에 더 관심이 가고, '공의'를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강박함에 정죄의 칼날을 들이민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과연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음' 그 자체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을 덧붙이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복음 안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상황에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무슬림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힌두인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불교인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일반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형식은 은혜의 복음을 자칫 율법으로 전락시킬 위험의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는 인간의 틀에 갇힌 형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 그 자체일 뿐이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슬림들의 관습과 문화와는 것대에 맞추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 우상에게 넘어간 그들의 영혼을 어둠의 손길에서 구원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종교, 다시 말해 이슬람과 무슬림과 라마단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관습과 문화와 종교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슬람과 무슬림과 라마단을 아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더더욱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결과적인 역사는 성령님의 역할임을 역시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아무런 희망 없는 우상에 대해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복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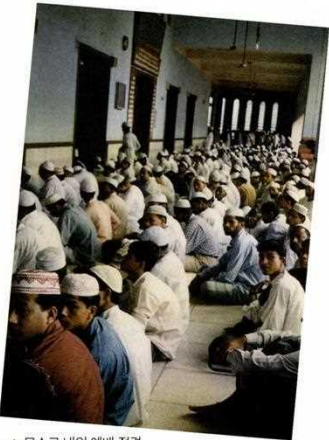
(선교위원회 제공)



▲ 파키스탄의 모스크(이슬람 사원)



▲ 기도 후 일라에게 감사하는 아이들



▲ 모스크 내의 예배 전경

오직 주께 감사하라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우리 받은 모든 축복 감사하며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영원이 찬양 드리리.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은사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니

감사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심자기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몰아내시며

영생과 맘에 기쁨 주시며

양식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니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세례를 받고

정 순녀 (성도, 13교구)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은 학창시절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습까지 받았습니다. 그 때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데 대한 감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삶의 문제에 부딪혀 일을 하다보니 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었고 자녀들은 신앙 가운데 자라기를 기도하며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 다시 신앙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에 관련된 다른 것보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다닐 각오를 했고 사둔의 전도로 중현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세례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 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삶에 매여 있었던 것에 대한 많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도'가 뭔지, '제사장'이 뭔지 몰라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사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된다는 말씀이나 우리가 모두 제사장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세례자 교육을 받으며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 받고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는 삶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성경을 알고 나니 주님의 뜻이 놀랍고 감사할 뿐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세례자 교육 때의 고백처럼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건곤해진 느낌이 듭니다.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소 중' 청년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후 몇몇 이단 풍파를 따라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다가가고 결국에는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시절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중현교회를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분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도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나 다른 성도들이 말하는 구원의 감격, 행복, 기쁨을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자신은 제자리에 멈춰 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7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작시자인 벤더(J. W. Van De Venter, 1855~1939) 목사는 원래 예술 방면에 탁월한 소질을 보였으며, 일찍부터 예술가로서 대성하기를 꿈꾸어 왔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예술가와 전도자라고 하는 진로를 놓고 변민하였으며, 마침내 주께 무릎을 꿇고서 남은 생애를 복음 전도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심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시이며, 이 찬송시를 위해 벤더 목사의 교회에서 찬송 인도자 및 독창자로 활약했던 위튼(Winfield Scott Weeden, 1847~1908)이 작곡했다.

- 1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가겠네
2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3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후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나라에서는 이 찬송이 헌금을 드릴 때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사를 좀더 음미해 보면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인 복락을 포기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58	유광연	1 장년부		1365	김정호	8 장년부	민은혜(8)	1372	김윤은	19 대학부	
1359	김영숙	1 장년부		1366	김규연	16 청년과	김희영(17)	1373	나현순	19 대학부	구정희(8)
1360	김진숙	2 장년부		1367	최용희	9 청년부	김필문(8)	1374	양기석	19 대학부	신호화(8)
1361	이동욱	2 청년과	김희철(1)	1368	이승근	19 청년부	강우형(2)	1375	임동연	19 대학부	오준봉(8)
1362	김귀숙	2 청년과	김희철(1)	1369	박주희	19 청년부		1376	남혜선	19 고등부	이희철(193)
1363	김영호	7 청년과	김재훈(13)	1370	신재홍	9 청년부	정경성(12)	1377	오경희	19 고등부	한은경(8)
1364	김영옥	7 장년과	이수자(11)	1371	송가연	19 대학부	김진도(19)	1378	홍미희	19 예비대부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김 연 희 (중등2부)



저는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라고 하셔서 단기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중등부 친구 2명과 함께 지원했습니다. 인도어로 전할 내용을 연습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와 인도어와 그림을 섞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법적인 제계를 받지는 않지만, 주위 사람로부터 배척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한편, 복음을 전하던 중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기 전에, 인도인들은 바가지벌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을 별로 당하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특히, 선교 기간 중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비가 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곤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차량을 운전하시던 분이 감동해서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진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호텔에 있을 때 저희 친구 두 명이 함께 호텔 직원 3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꼬기려 머리 형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명은 돌아갔고 그 중 한 명이 우리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은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오래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저는 나름대로 신앙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게을러져서 성경 읽기도 작심 삼 일로 그치고 맙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방학에 선교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 교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

제9강 교회론

교회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로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연에 앞서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치니라" (엡 1:22-23). 이에 교회는 성령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대원 기자)

고 통

하늘 높이 솟은
십자가 하나에
누군가가 있다

죄와 눈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날 보며 미소 짓는 누군가가

못이 박힌 손은
너무나도 많이
아파보이는데

날보며 안었이
웃고 있는 그 사람.

"아프지 않나요?"
나는 물었다.

"왜 거기에 매달려 있나요?"
나는 또 물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박병호 (중등3부)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세상 것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낄 때,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기에 저는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사랑하시듯 여러분의 영혼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 풀려 주심으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씩 세상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동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강윤정 (중등3부)



직원모집

- 대한예수교
- 총회**
- 회

이종철	김영호	이국근	김교섭	안정국
12월 27일	9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배준영	니광영	정진호	김종득	고광환
12월 27일	11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위장환	김익한	김정수	장 훈	이현미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이희식	최종철	홍명환	안치원	이태복
8월 15일	8월 15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김종신	양재호	이성진	조준호	최성진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이재영				
12월 27일				
남편도사 이광희 (지교)				
여전도사				
정영희	신동호	윤윤진	한영진	김진석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홍순호	이옥주	김말자	안태호	김정연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조옥자	강덕필	김경선	장재호	최문실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이수경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ong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